

## 전남도, 지난해 1억 이상 부농 6023호 '역대 최다'

생산량·가격 상승 주효...지원시책도 한몫

축산·식량작물농가 등 순...해남 가장 많아

전남도는 최근 5년간 소득 1억 원 이상 농가 수가 꾸준히 늘어 지난해 말 기준 역대 최다인 6023호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 5547호보다 8.6% 증가한 규모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도와 시·군이 도내 농가와 법인을 대상으로 행정자료를 분석하고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5000만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 13만 6972호의 8.7%인 1만 1987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했다.

잠재적 고소득 농가인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농가도 전년보다 1.8%(105호) 증가한 5964호였다.

특히 도내 농가수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는 2017년 4562호, 2019년 5166호, 2021년 6023호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소득 규모로는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농가가 4377호로 전체 고소득 농가의 73%를 차지했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348호(22%), 5억 원 이상은 298호(5%)를 기록했다.

경영 형태로는 축산농가가 2292호로 38%를

차지했고, 식량작물농가 2052호(34%), 채소농가 893호(15%), 과수농가 254호(4%) 등 순이었다.

시군별로 해남군이 720호(12%)로 가장 많았으며, 고흥군 646호(11%), 강진군 577호(10%), 영광군 481호(8%) 순이었다.

연령별로 50대가 2005호(33%)로 최다치를 보였고, 65세 이상 1502호(25%), 60세 이상 64세 미만 1477호(25%), 49세 이하 청년농부 1039호(17%)다. 전 연령대에 걸쳐 귀농인 농가 75호(1.2%)가 포함돼 눈길을 끈다.

1억 원 이상 고소득 부농의 증가한 것은 농업분야의 경우 지속적인 쌀값 상승, 태풍·병해충 감소에 따른 식량작물 10a당 생산량 증가, 딸기·오이·고추 등 채소가격과 배·복숭아·잡다래 등 과일가격 상승 등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축산 분야는 코로나19로 가정식 소비증가에 따른 한우가격 상승 및 사육 수 증가가 주효했다. 농가소득 확대를 위한 전남도의 각종 지원 시책도 한몫했다는 평이다.

전남도는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새정무비 중심의 전남 쌀 브랜드화·규모화 ▲한우 품종개량 등으로 고급화 및 생산성 증대 ▲양돈 등 친환경축산 및 축산환경 개선 ▲채소·과일 품질 고급화 및 6차 산업화 ▲아열대과일 국내시장 선점 및 수출확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매년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 500호를 육성한다는 목표로 5000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잠재적 고소득 농가의 도약을 집중 지원, 성장 사다리를 놓겠다”며 “농업 생산기반을 다지고, 농촌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후계농을 고소득 부농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행렬등 만드는 조계사 신도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날(5월 8일)을 앞두고 27일 오후 서울 종로

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들이 부처님오신날 연등회(4월 30일)에 사용할 행렬등을 만들고 있다.

### 광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확' 늘리고 디자인 티나지 않게

광주시가 아동급식카드 이용방식을 전면 개설했다.

기존 아동급식카드를 가맹점으로 신청한 업체만 대상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어 동네에 가맹점이 많지 않은 경우 메뉴 선택권이 제한돼 영양 불균형의 우려가 있었다. 일반카드와 디자인이 달라 낙인감을 유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25일 새로운 방식의 아동급식카드 사업 수행업체를 모집하고 신한카드㈜를 수행업체로 선정된 뒤 지난 2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900여곳→2만2000여곳 12배 확대  
 디자인 개선·IC칩 교체·7월 시행

이러 편의성을 높이고 시스템을 변경하는 작업을 거쳐 7월1일부터는 새로운 방식의 아동급식카드를 시행할 계획이다.

새 방식의 카드가 도입되면 별도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선정 카드사의 가맹점과 자동으로 연계돼 2만 2000여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 8000여 명이 거주지 주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종류의 메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주점, 카페 등 결식 아동 급식 이용에 부적합한 업소에서는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카드 디자인을 일반카드 디자인으로 변경해 아동들의 낙인감을 해소하고, 마그네틱 카드에서 IC칩 카드로 교체해 단말기 결제유류로 인한 불편함도 해결할 방침이다.

곽현미 여성가족국장은 27일 “7월부터 급식카드가 개선되면 아동들이 집과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식단의 음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지역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영양식단을 제공받아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 '6·1지방선거' 광주시장 선거 대진표 확정

민주당 강기정·국민의힘 주기환·정의 장연주·진보 김주엽·기본 문현철

6·1지방선거의 광주시장 선거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27일 광주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리턴매치끝에 4년만에 이용섭 현 광주시장을 꺾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 수석이 후보로 확정됐다.

강 예비후보는 전남대 삼민주위원장(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을 지내며 80년대 학생운동을 이끈 '86세대'의 대표 주자로 17~19대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국민의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주기환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이 뛰고 있다.

주 후보는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있을 당시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 윤 당선인이 지휘하는 주요 수사팀에 합류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해왔으며 광주시장 출마에 윤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은 광주시의원 장연주 후보, 진보당 광주시장위원장 김주엽 후보, 기본소득당 광주시장공동위원장 문현철 후보 등도 표밭을 갈고 있다.

박재범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